

##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읽기

# 성경 읽기와 인간의 타락

☞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



※ 본 칼럼은 격월로 연재 됩니다.

‘창조-타락-구속’이라는 틀로 이해하는 기독교세계관에서 타락의 특징은 그 영향이 창조된 모든 것에 미친다는 것이다. 월터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창조된 사물 그 어느 것도 원칙상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나 가족과 같은 사회 제도든, 예술이나 공학과 같은 문화적 추구든, 성이나 식육과 같은 육체의 기능이든, 창조 세계의 넓은 영역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수공품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란의 영역으로 끌려들어 갔음을 발견한다” (“창조 타락 구속”, 94쪽). 성경 읽기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란의 영역”에 끌려들어간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타락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행위도 타락의 영향을 받는다. 신앙적인 일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예. 이사야 1:11-13). 성경 읽기도 예외가 아니다. 과연 타락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성경 읽기와 인간의 타락

타락의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관계의 파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타락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존 스토틀는 죄의 특성을 “자기중심성”(self-centeredness)이라고 설명한다. 타락으로 인해 손상된 관계들에 죄의 특성인 “자기중심성”이 결합할 때 우리의 성경 읽기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물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 이것은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자).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읽는 것이다. 마주 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도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수천년 전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성경의 원래의 미와 의도를 잘 이해하며 읽기 위해서는 더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러한 노력을 귀찮아하며 자기 편한대로 성경을 읽어버릴 때 성경 읽기는 위험해진다.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는 한 가지 유형은 성경을 “자기 확신 강화제”로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그 성품과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되지는 커녕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을 신앙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신약학자 권연경 교수는 “해석학적 이상송배”라고까지 표현한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송배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참칭하는 것 역시 이상송배와 다름 없다. 성경 읽기가 이상 송배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진단은 매우 무섭다. 그러나 사실이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노예 제도, 인종 차별과 성차별을 성경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사용한 것도 성경 말씀이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했던 말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마 4:6)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이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무조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읽고 사용하는지 깊게 성찰하지 않을 때, 사탄처럼 성경을 이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며 던진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마 4:7). 이 대답을 예수님은 끝까지

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삶으로 확증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롬 1:4).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 읽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읽기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타락은 이 사실을 잊게 하고 잊고 싶게 만든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둘째, 타락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손상된 이웃과의 관계와 자기중심성이 만날 때,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를 잇는 채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주의적으로 읽는다. 다음은 매우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단어를 빼고 적은 것이다. “하나님이 [ ]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래 이 빈 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빈 칸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고 싶어한다. 자기중심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사실상 “나”라고 생각한다. 빈 칸에 우리 이름을 넣을 때에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그리고 온 세상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잇는 채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읽을 때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마음에 심기지 않고 그저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 우리의 생각이 멈춘다. “나, 나, 나”만을 되뇌이는 성경 읽기는 타락한 성경 읽기다.

또한 “교통 정리식 성경 읽기”도 있다. 성경을 읽으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오늘이 큐티를 아무개가 꼭 해야 할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은 성경의 목적과 유익을 잘 말해준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영감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 없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예. 시편 119: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위로를 성경의 유익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 힘들다. 그래서 피한다. 그리고 남에게 미룬다. 이것은 자신을 포함시키는 공동체적 적용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교통 정리” 해주는 것, 성경 읽기의 타락한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타락은 인간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는 환경과 생태를 무시하는 인간중심적 성경 읽기가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만물이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에 사람뿐 아니라 “소, 나귀, 모든 가축”들도 쉬라고 명하셨다(신 5:14). 새의 보금자리에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았을 때 그 둘 모두를 취하지는 말라고 하셨다(신 22:6).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에서도 찍어버릴 수 있는 나무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나무를 구별해야 했다. 들에 있는 나무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신 20:19-20, 새번역 참고).

그런데 자신을 온 세상의 중심에 놓는 인간은 온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느끼지 못한다. 잠언을 읽을 때면 “여호와와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 10:22) 같은 말씀에는 밑줄을 그으면서도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와 같은 잠언 (잠 12:10)은 누가 알려줘야만 그제서야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안다. 인간중심적 성경 읽기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명령을 창조세계를 돌보고 섬기는 왕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특별한 지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소명임을 보여준다. 이 사실이 어색하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인간중심적으로만 읽어온 것이다.

## 나가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토대인 성경읽기에도 타락은 영향을 미친다. 타락의 영향을 받은 성경 읽기는 자기중심적 성경읽기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는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개인적인 관심을 벗어나지 못하며 인간의 범위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공유하는 다른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잊지 못한다. 내 이익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마음을 가리는 불완전한 성경읽기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달연 삼기고 쓰면 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우상숭배적 성경읽기를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잘못된, 타락한 성경 읽기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성경을 내 입장이 아니라 성경 저자의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나의 성경 읽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을 생명의 감동 속에서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필요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하는 참된 은혜가 있는 성경 읽기가 될 것이다.



**전성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B.Sc.), 캐나다 리젠티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을 (M.C.S., Th.M.),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구약학(D.Phil.)에서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주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를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들을 하고 있다.